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programs like '40 콧노랑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etc.

올여름 애니메이션에 빠져봐~

'인사이드 아웃' '손터쉽' 등 잇따라 개봉

여름방학을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가 속속 개봉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친구나 연인들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족까지 여러 관객층을 잡으려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손꼽히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명가들의 작품이 눈에 띈다. 9일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감독 피트 닥터)은 기발한 상상력과 따뜻한 정서를 한데 갖춰 어른들도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어온 픽사의 장점을 살린 영화다. '인사이드 아웃'은 개봉 첫주인 지난 사흘간 전국 777개 스크린에서 67만8685명(21%)을 모아 개봉 첫 주말 단숨에 관객 수 2위로 뛰어올랐다.

영화는 사람의 머릿속 감정통제본부에서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 다섯 캐릭터의 협업으로 본부가 작동한다는 기발한 설정에서 출발한다. 관객 동원력이 실사영화보다 약한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성인 관객이 보기에 전혀 손색없는 이야기와 감동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봉 초반 흥행몰이에 나섰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평단의 호평이 쏟아졌고 '홍그라운드'인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해 3주간 2억 46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23일 찾아오는 영화 '손터쉽'(감독 마크 버튼)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름난 아드만 스튜디오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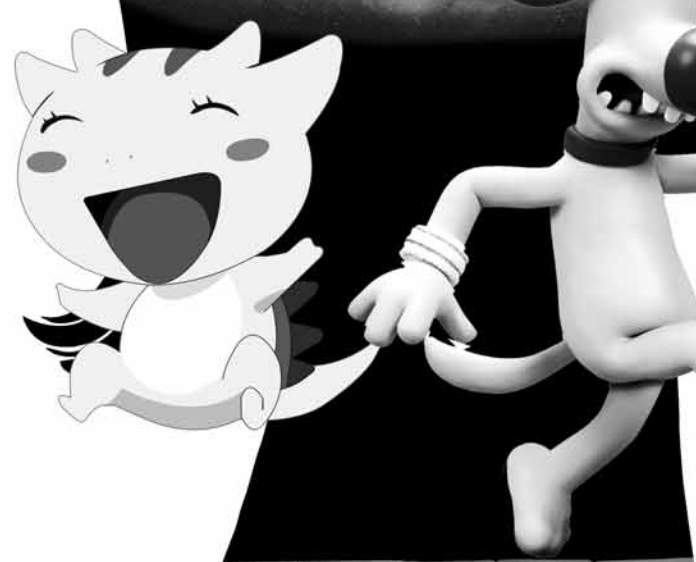


아드만은 1972년 영국에서 데이비드 스프록스톤과 피터 로드가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다. 2000년 '치킨 런'으로 북미에서 1억5000만달러를 벌어들였고 2005년 '월레스와 그로밋-거대 토끼의 저주'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이번 영화는 집을 나간 아빠를 찾으려 대책 없이 위험천만한 도시로 떠난 양 손과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다. 양떼의 리더 손, 막을 것이 최고인 셸리, 장난꾸러기 트윈스, 어린양 팀미 등 다양한 양 캐릭터가 등장해 대사가 없어도 이들 캐릭터의 움직임만으로 유머와 드라마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성 소재의 인형을 만들어 조금씩 변형하면서 촬영하는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살려 20여 명의 애니메이터와 100여 명 스태프가 9개월간 달려붙어 33개 세트에서 40여 개 캐릭터를 작업했다. 뒤이어 30일 개봉하는 '미니언즈'(감독 피에르 코팽)은 세계적인 흥행작 '슈퍼배드'의 제작사 일루미네이션이 '슈퍼배드'의 인기 캐릭터 미니언을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다. 미니언 삼총사 케빈, 밥, 스투트트가 여성 악당 스킵을 만나며 펼치는 모험담을 그린다. 영어판에서는 샌드라 불럭과 존 햄, 마이클 키튼 등이 목소리 출연했다. 좀 더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도 개봉한다.

국내 제작돼 30일 개봉하는 '고려서 만나겠다-함께해서 행복해'(홍감독 최경석, 감독 노나카 가즈미)는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 권씩 있을 법한 미야니시 다쓰야의 베스트셀러에 바탕을 둔 애니메이션이다. 꼬마 공룡 미르가 펼치는 모험을 7만여 장의 셀로 이뤄진 2D 셀 방식으로 제작했다. 이 시리즈는 일본에서 전작 '극장판 포켓몬스터XY-과괴의 포켓몬과 디안시'까지 시리즈 누적 관객 7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번 영화에서는 전설 속 바다 신전에 숨겨진 보물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포켓몬레이저'를 만난 지우 일행의 여정을 그렸다.



EBS 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Programs include '05:40 EBSe 생활영어',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etc.

EBS 2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Programs include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반박반박 발명 클럽', '15:15 내 친구 아서', etc.

EBS플러스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Programs include '00:00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 Junior>', '01:40 <문학-알짜개념>',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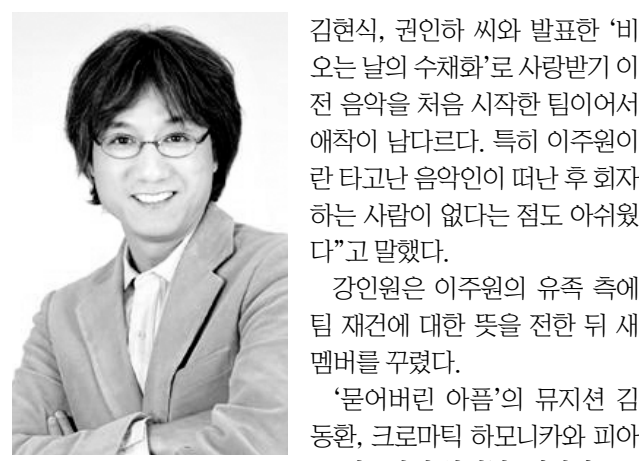
EBS플러스2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Programs include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시험', etc.

“명곡 다시 불러 팀 가치 살려내고파”

‘따로 또 같이’ 강인원, 27년만에 팀 재건

“따로 또 같이”가 1970~80년대 선보인 주옥같은 명곡을 다시 불러 가요사에서 팀의 가치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1970~80년대 포크그룹 ‘따로 또 같이’의 원년멤버 강인원 <사진>이 새 멤버를 영입해 27년 만에 팀을 재건하는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강인원은 “팀의 중심은 리더였던 고(故) 이주원 형이었다”며 “지난 4월 형의 6주기 추모 공연에 다녀오면서 ‘따로 또 같이’의 노래가 구름처럼 흘러갈 게 아니라 형의 좋은 노래가 많았으니 그걸 다시 불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1979년 고(故) 이주원, 전인권, 강인원, 나동민으로 결성된 ‘따로 또 같이’는 1988년 4집까지 활동하며 ‘땀도는 얼굴’, ‘내 남의 사랑은’ 등 서정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한국 대중음악 역사 100대 명반에 꼽힌 그룹이다. 그러나 나동민의 미국 이민, 전인권의 록그룹 들국화 결성, 강인원의 솔로 독립, 2009년 리더 이주원의 사망 등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강인원은 “전인권 씨가 1집까지 내가 2집까지 활동하고 이주원, 나동민 두 멤버가 3·4집까지 활동했다”며 “내가 고(故)



강인원, 권인하 씨와 발표한 ‘비 오는 날의 수채화’로 사랑받기 이전 음악을 처음 시작한 팀이어서 애석이 납니다. 특히 이주원이란 타고난 음악인이 떠난 후 회자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아쉬웠다”고 말했다. 강인원은 이주원의 유족 측에 팀 재건에 대한 뜻을 전한 뒤 새 멤버를 꾸렸다. ‘물어버린 아픔’의 뮤지션 김동환, 크로마틱 하모니카와 피아노 연주자인 안정환, 베이시스트 안영훈이 합류했다. 노래는 네 멤버가 함께 한다. 새로 구성된 ‘따로 또 같이’는 오는 17일 열린 대구 포크페스티벌 출연을 시작으로 새 음원을 선보이고 소극장 라이브 콘서트를 펼치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인원은 “따로 또 같이”는 당시 가요계에선 파격적인 프로그래머인 포크 그룹으로 앨범의 완성도를 지향했다”며 “우리 가장 먼저 기존 히트곡을 재해석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4일(음 5월 29일 辛卯)

Table with 3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Description, and Fortune Number. Includes text like '48년생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 60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etc.

이기찬, 2년 만에 ‘뷰티풀 투나잇’ 발표

가수 이기찬이 2년 만에 싱글 ‘뷰티풀 투나잇’(Beautiful Tonight)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13일 소속사 에이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싱글 음반에는 신곡 2곡이 담겼다. 이기찬은 타이틀곡인 ‘뷰티풀 투나잇’과 ‘악담’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뷰티풀 투나잇’은 사랑에 빠졌을 때의 마법 같은 순간을 노래한 발라드곡이다. 함께 수록된 ‘악담’은 1970~80년대 정통

알앤비(R&B) 사운드를 재현한 미디움 템포의 곡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는 남자의 심리를 그렸다. 소속사는 “‘또 한번 사랑은 가고’, ‘감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던 이기찬이 2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며 “타이틀곡인 ‘뷰티풀 투나잇’은 여름 밤의 한줄기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로맨틱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